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배터리) Volvo, 세계 첫 전기차 배터리 여권 출시 예정
- (ICE) Nissan, 내연기관 투자 중단 선언
- (EV) GM, 전기차 판매 위해 Costco와 협력 중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ADAS) DJI Automotive, 중국 완성차사 20개 모델에 저렴한 ADAS 공급
- (자율주행) Zoox, 오스틴과 마이애미에서 로보택시 테스트 시작
- (AAM) Archer, 미국에서 항공사 운영 허가 획득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Schaeffler) 하이브리드 부품 사업 확대 및 EV 부품 비용 절감 전략
- (Forvia) 멕시코 사업 환경 우려 속 아시아 및 유럽에서 성장 기회 모색
- (Denso-Kyocera)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증 실험 계획 발표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배터리) Volvo, 세계 첫 전기차 배터리 여권 출시 예정

- Volvo는 英 Circular*와 함께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여권을 EX90**에 탑재할 예정으로, 이를 통해 원재료와 부품의 원산지, 재활용 비율, 탄소 발자국 등의 정보 제공***

* Volvo가 투자한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광산에서 개별 차량까지 배터리 소재 추적 가능

** EX90은 '24년 하반기 내 유럽 및 북미 출시를 목표로 곧 생산을 개시할 예정

*** 차량 운전석 도어 부근의 QR코드로 차량 소유주에게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며 규제기관에는 전체 정보 제공

- EU가 '27년부터 배터리 여권 의무화를 예고한 가운데 Volvo는 이에 3년 앞서 배터리 여권을 출시하는데 성공했으며, 향후 모든 전기차로 확대 적용할 계획

※ Reuters('24.6.4.) 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autos-transportation/volvo-issue-worlds-first-ev-battery-passport-ahead-eu-rules-2024-06-04/>

◆ (EV) Nissan, 내연기관 투자 중단 선언

- '24.6월 Nissan은 친환경차에 전념하겠다고 내연기관 투자 중단을 선언했는데, 이는 '24.5월 Toyota·Subaru·Mazda가 차세대 내연기관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

* 3사는 다양한 탄소중립 연료와 호환 가능하며 기존 대비 소형화되어 효율성이 개선된 엔진 개발 예정

- 관련하여 Nissan은 '24.3월 '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60% 달성 목표 등이 담긴 新 경영 플랜을 공개했으며, 이르면 '25.3월 차세대 LEAF 생산을 개시할 예정

※ Electrek('24.6.3.) <https://electrek.co/2024/06/03/nissan-no-more-ice-funding-amid-toyotas-new-engine-pact/#:~:text=Although%20several%20other%20Japanese%20automakers,moves%20toward%20an%20electric%20future>

◆ (EV) GM, 전기차 판매 위해 Costco와 협력

- GM은 美 내 차량 판매를 위해 유통기업 Costco와 협력 중으로, 'Equinox', 'Blazer', 'Lyriq' 등의 전기차 구매시 Costco 회원들에게 \$1,000(약 137만원)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Costco 산하 Costco Auto*를 통한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

* 자동차 딜러와 소비자들을 잇는 중개 업체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0만대의 차량 판매를 증대했는데 이는 미국 연간 판매량의 3%에 해당하며 대형 상장 딜러 그룹인 AutoNation의 판매량보다 높은 수치

- 이에 대해 Costco 관계자는 당사의 고객층이 일반적인 전기차 소비자의 프로필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는데, 관련 자료에 의하면 Costco의 美 내 멤버수는 5,000만명 이상이며 이 중 고소득층[연소득 \$12.5만(약 1.7억원) 이상]의 비중이 35%로 업계 평균보다 높음

* Cox Automotive에 따르면 '24.4월 美 내 전기차 평균 거래가는 \$55,242(약 7,615만원)

※ CNBC('24.6.7.) <https://www.cnbc.com/2024/06/07/gm-costco-auto-program-evs.html>

◆ (ADAS) DJI Automotive, 중국 완성차사 20개 모델에 저렴한 ADAS 공급

- DJI Automotive*가 모기업의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저렴한 Lv.2 ADAS**를 제공하는데, 이를 채택하는 중국 완성차사가 증가하고 있으며, 올해 출시하는 최소 20개 모델에 탑재될 예정
 - * 중국의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DJI에서 '16년 차량 프로젝트팀 조직, '23년 분사
 - ** 출시된 모델은 고속도로 자율주행, 자동 주차 기능을 보유하고, 카메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95만원부터 시작
 - *** '24.4월 동사의 ADAS를 장착한 SAIC-GM-Wuling 'Baojun Yep Plus'(1,900만원), Chery 'iCar03'(3,222만원)가 출시되었으며, 중국 Volkswagen, Dongfeng, FAW와도 협력 중임
- Nikkei Asia에 따르면 동사는 '24년 말 일본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7,000위안(132만원) ADAS 출시 계획이며, 일본 완성차사와 파트너십 검토 예정임
 - * Nikkei Asia('24.6.6.) <https://asia.nikkei.com/Business/Automobiles/DJI-drone-tech-helps-Chinese-car-makers-offer-affordable-driver-assist>

◆ (자율주행) Zoox, 오스틴과 마이애미에서 로보택시 테스트 시작

- Zoox는 '1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해, '19년 라스베이거스, '21년 시애틀로 확대하였으며, 이번에 오스틴·마이애미*까지 테스트 도시를 추가함
 - * 오스틴의 수평형 와이어형 신호등, 철도 건널목, 뇌우, 마이애미의 교차로 대각선 신호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개선할 계획
 - ** 동사의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 첫 출시 목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·라스베이거스이며, 이후 서비스 지역을 검토 중임
- 두 도시에서 맵핑 이후,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개조된 Toyota 'Highlander'를 배치하여, 도심밀집지역 자율주행 기능의 정밀 조정을 위해 테스트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
 - * 아직은 로보택시 전용 플랫폼 차량을 배치하거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
 - * Zoox('24.6.6.) <https://zoox.com/journal/austin-miami-2024>

◆ (AAM) Archer, 미국에서 항공사 운영 허가 획득

- Archer*는 미국연방항공청(FAA)으로부터 Part135** Air Carrier & Operator Certificate (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)를 획득하여 주문형 비정기 항공 서비스 운영 권한을 부여 받음
 - * '24.5월 카카모빌리티와 최대 50대(2.5억달러), '23.11월 UAE의 Air Chateau와 최대 100대(5억달러), '21.2월 United Airlines와 10억달러에 5억달러 추가 옵션 eVTOL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 기업들과 협력 중
 - ** 해당 증명을 획득한 eVTOL 제조업체는 ('22.5월)Joby와 ('24.6월)Archer가 유일함
- 이외에도 동사는 Part 145 Repair Station Certificate(정비창증명)를 보유하고, eVTOL 'Midnight'에 대한 TC(형식증명) 취득 과정에 있으며, 이르면 내년부터 운항 개시가 예상됨
 - * CNBC('24.6.5.) <https://www.cnbc.com/2024/06/05/archer-aviation-faa-signoff.html>
 - FAA('23.1.10.) https://www.faa.gov/hazmat/air_carriers/operations/part_135

◆ (Schaeffler) 하이브리드 부품 사업 확대 및 EV 부품 비용 절감 전략

- Schaeffler*는 하이브리드차 부품 수요 증가**에 따라 중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부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, 미국에서는 일부 소규모 계약 관련 주문이 2배로 늘고 있음
 - * Volkswagen, GM, Ford, Stellantis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 공급
 - ** 변동성이 큰 EV 수요 대응을 위한 Volkswagen, GM의 하이브리드 기술 채택이 배경
- 또한, 잠재 EV 고객이 저렴한 가격을 선호함에 따라 EV 부품 비용 절감이 불가피한데, 동사는 Vitesco와 합병*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힘
 - * 합병은 '24년 4분기 완료 예상
 - * Automotive News Europe('24.6.11.) <https://europe.autonews.com/suppliers/schaeffler-benefits-move-away-evs-hybrids>

◆ (Forvia) 멕시코 사업 환경 우려 속 아시아 및 유럽에서 성장 기회 모색

- Forvia는 수소저장용기 생산 공장 등 투자 지역을 물색 중인데, 멕시코의 높은 인플레이션, 인건비 상승, 지역 부패, 운송 차량 절도와 같은 치안 문제에 대해 우려함
- 한편, 동사는 아시아 자동차 시장의 두드러지는 성장을 기대하는데, 글로벌 신차 생산량의 아시아 점유율이 60%(중국에서만 35%)에 달하고 인도가 주요 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, '28년까지 글로벌 R&D 투자의 70%를 중국·인도에 집중할 계획
 - * 또한, 동사는 '24.2월 인력 감원 및 지출 최적화를 통한 유럽 내 비용절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음
 - * Automotive News('24.6.9.) <https://www.autonews.com/suppliers/forvia-ceo-sees-inflation-security-issues-mexico>

◆ (Denso-Kyocera)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증 실험 계획 발표

- Denso와 일본 전자기기 제조업체 Kyocera는 노후 공장 지붕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무게를 분산시키는 구조로 경량화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동 개발
 - ** Denso는 공장 지붕의 구조 및 최대 하중을 분석, Kyocera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하중 분산 구조로 경량화 설계하여, 기존보다 무게를 절반으로 줄임
- 해당 시스템을 '24.10월부터 '25.9월까지 Denso 니시오시 공장 건물에서 실증 실험을 실시하여 신뢰성과 발전량 검증하고, 향후 국내외 공장까지 확대 고려 중
 - * Nikkei('24.6.11.) <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XZQOFD117UB0R10C24A6000000/>